

전국 시도교육감협 “교육부와의 분권 실현”

총회서 협의회 정례화·정부 교부금 사업 선별적 수용 통한 권한 분산 촉구
학교장·교육감 고유 권한 침해하는 등 일방적 정책 추진방식 개선 요구

“교육부는 기초학력 전술조사 같은 사업을 만들어 교육부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려 한다. 이는 유·초·중등교육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행령과 정책 과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 또한 시도교육감협의회 정례회와, 정부 교부금 사업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교육부와의 분권이다. 이를 통해 유·초·중등교육의 집행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골자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린 66회 총회에서 학교와 교육청을 지나치게 규제·강제하는 시행령 이하 법령 정비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안은 모두 19개로, 학교시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개선 등이 담겨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낸 1차 정비안과 이번 2차 정비안을 갖고 교육부와 협의 후 우선과제를 선정, 오는 15일 열리는 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 토대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소관 44개 법률 정비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학교장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정책과, 교육 현장의 요구 분석이나 협의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정책의 다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적격자를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다.

교육전문직 임용과 관련 교육감의

권한을 이전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상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교육자치 정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해마다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뒤 평가영역별 상위 교육청을 발표하고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지금의 교육청 평가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과거 정부를 시행령 정부라 할 정도로 법률 근거도 없이 교육을 통제하려 했는데, 현 정부는 시행령 개정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소한의 실천 의지라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장은성 기자



봄과 함께 찾아온 벚꽃
1일 전주 덕진구청 앞 벚꽃로가 만개한 벚꽃으로 가득 차 있어 이 길을 지나는 시민들이 봄기운을 느끼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미 노력 北 호응 기대”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규정하며 북한의 호응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라며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내버스 24개 노선 130대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은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4월부터 전주시내버스 24개 노선 130대에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버스 내부에 무선AP(인터넷 접속장비)를 설치하고 승객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통신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사용료는 국비와 지방비를 반씩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통신사에 관계없이 시내버스에서 휴대폰 와이파이 목록 중 ‘PublicWiFi@BUS FREE’를 선택하면 별도 인증절차 없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7월까지 243대의 버스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버려지는 종이에 생명을”

전주시설공단, 파쇄종이 모아 수공예품 만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온리’와 협약 체결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은 1일 파쇄종이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온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쇄기를 통해 분해된 종이는 재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된다. 그 양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며 해마다 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파쇄종이 기증 등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협동조합 온리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동조합 온리는 파쇄종이를 한지제작방식과 씨앗 수경재배 기술로 되살려 폐종이 업사이클링(Upscycling) 친환경 문화수공예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 기업의 제품은 ‘한스타일 문화관광상품’,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Hi-Seoul 우수 상품’, ‘사회적기업 스타상품’ 등에 선정된 바 있다. /송효철 기자

공단은 이와는 별개로 ‘종이 없는 회의’ 등을 통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종이 없는 회의’를 통해 복사용지와 토너 구입 예산 3500만원 가량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종이 없는 회의’는 공단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일회성 종이문서 생산과 복사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줄이고 디지털 기기의 활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공단의 구상이다. /송효철 기자

매일 INDEX
2면 -도, 새들마을 공모 '전국 최고' 5면 - "성범죄 예의없이 형사고발" 12면 - 서도순예술촌 유네스코 인증 도전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